

# 韓國의 甲冑小考

## — 豆錫鱗甲冑를 中心으로 —

李 康 七

머릿말

甲冑란 옛 武士들이 自己의 몸을 保護하기 爲해 着裝한 것이다. 卽戰時에 있어서 敵의 弓矢나 槍劍으로부터 몸을 保護하고, 儀式時에는 禮儀나 威嚴을 誇示하기 爲해서이며, 또한 訓練時에는 有事時에 對備하여 心身の 鍛鍊을 圖謀하기 爲해 着裝하였던 것이다. 故로 이는 大別해서 戰時에 着裝하는 戰鬪用과 儀式時에 着裝하는 儀裝具로서 그리고 訓練時에 着用하는 訓練用으로 區分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製法에 있어서도 最初에는 獸皮를 利用하였고, 漸次 人類의 頭腦가 明哲해짐에 따라 그 技術이 發展되어 金屬製로 併用이 되었고, 그 形態에 있어서도 板甲과 札甲으로 分離 製造 着用하게 되었는바 板甲은 步兵用이며, 札甲은 騎兵用으로 使用되었던 것이다. 그 種類에 있어서도 鐵板으로 만든 短甲과 쇠미늘(鐵札)과 쇠고리(鐵鑲)로 엮어 만든 鏡幡甲을 비롯하여 철사로 된 고리(鐵小鑲)를 서로 피어서 만든 鑊子甲, 그리고 쇠조각 미늘에 수은을 올려 만든 水銀甲, 두치 길이의 네모 반듯한 쇠로 만든 미늘을 겹쳐 칠하여 검은 鹿皮로 엮은 柳葉甲, 돼지의 가죽(豚皮)으로 자그마하게 미늘을 만들어 녹비(鹿皮)로 엮어 맨 皮甲, 가죽을 長方形으로 잘라 두세겹으로 합쳐서 안에 대고 머리가 둥근 못으로 연결시킨 黃銅頭釘甲, 豆錫으로 고기 미늘 같이 연결시켜 만든 豆錫鱗甲 冑等 그 形態에 있어서도 매우 多樣하였음은 史書나 傳存되는 遺物을

通해 보더라도 너무나 自明한 事實이다. 그러나 一四世紀 以後 戰術的 體制의 改革을 이루게 된 火藥兵器가 登場하고, 또한 戰術이 漸進的으로 發展을 거듭함에 미쳐, 軍服飾의 制度 亦是 改革이 되게 되었으니 이는 本來의 目的에서 漸次 距離가 멀어지게 되어 그 實効를 喪失하게 되었던 까닭이다.

然而那 本稿는 現在까지 나타난 傳存遺物中 各分野別로 代表的인 것 卽 繪畫, 出土品, 實物等에서 간추려보고 끝으로 實物로는 가장 形態나 製法이 두드러진 豆錫鱗甲冑에 對하여 詳考하기로 한다.

### 一、傳存實物의 實態

#### 가、繪畫의 인面에서

갑옷을 입은 形態를 그림으로 表現된 것은 高句麗 壁書中 雙楹塚 姜道 東壁에 그려진 騎馬武士像을 爲始하여 龕神塚 壁畫人物畫等이 傳存되고 있는바, 雙楹塚에 나타난 騎馬武士像은 말에도 갑옷을 입혔고 武士는 투구頂蓋 위에 幹柱를 세워 毛飾을 하는 한편 兩角이 달렸고 左右 耳部에는 끈을 턱 밑으로 매어 투구를 고정시킨 형상이다. 아울러 갑옷은 上衣와 下衣로 分離하여 上衣는 목가리개(鑑)를 貼付식으로 하고, 소매도 亦是 손목에까지 이르게 하는 한편 全體 길이는 臀部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한편 下衣는 허리에서 蹠骨에까지 이르게 하였는데 上衣에 비해 통이 넓은 형태이고 보니 매우 活動的인 感覺을 준다. 따라서 上衣 下衣 모두 長方形의 片札을 連結시킨 모양인데 資料는 皮製인지 아니면 鐵片인지 區分할 수는 없다<sup>①</sup>. 또한 龕神塚 武士의 甲冑도 투구는 鉢形인데 頂蓋에는 毛飾이 裝飾되었고, 갑옷 上衣는 亦是 목가리개(鑑)가 貼付식이고, 길이는 臀部에 이르며, 소매는 팔꿈치를 넘어 팔뚝은 노출한 형태인데 資料는 그림상으로 다만 斜線이 左右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무엇을 使用하였는지 判別할 수 없으며, 下衣는 比較的 좁은 形態의

모양으로 踝骨을 덮은 狀態이다②。 그리고 繪書로서 傳存되는 것으로는 朝鮮王朝 時代에 이르러서인데 壬亂當時 平壤城을 收復하는 그림이 傳해오고 있고③, 또한 壬亂 壁頭 釜山 鎮城과 東萊府城을 守禦하다 殉節한 鄭撥僉使와 宋象賢府使의 殉節圖가 權以鎮府使에 依해 卞璞畫伯이 一七〇九年에 그린 것이 있는데 이 그림에 依하면 鄭撥僉使가 黑色甲冑를, 그리고 慶南左兵使 李珪와 東萊府守將들의 甲冑차림을 볼 수 있는 바이다。 이 兩殉節圖에 나타난 甲冑는 前記 壁畫의 模樣과는 전혀 變形된 形態이다。 卽 투구는 목가리개를 걸한 것이며, 上下衣는 分離된 形態에서 가슴과 上體를 保護할 수 있는 單一體制로 하여 行動에 自由로움을 期하게 하였다。 이는 勿論 상당한 年輪과 그간에 戰法 乃至는 兵器도 많은 發展과 向上의 原因도 있. 그러나 着用者의 範圍로 制限되어 指揮者 卽 有事時에 別定職으로 選任되는 元帥乃至는 副元帥 그리고 兵使나 水使 僉使의 位置에 있는 職位만이 着用된 것이 確實하다④。

따라서 이외에도 各種 屏風이나 儀軌圖 그리고 書畫에 나타나는 武士들의 甲冑着用 형태를 볼 수 있으나 그 細部的인 面에서는 判別이 매우 曖昧한 狀態이다。

### 나, 出土遺物面에서

甲冑의 形態를 어떻게 判別할 수는 없으나 期待를 걸어 볼직한 것은 亦是 出土遺物인상 甚다。 그 동안 많은 出土遺物이 發見된 것만은 事實이다。 그러나 敬歎할 程度의 것은 期待할 수 없고, 다만 어느 程度의 參考資料로 活用할 수 있는 것을 選擇하여 보기로 한다면, 첫째 騎馬人物土器이다。 투구는 앞이마를 뒤로 연해 옥침판에 눌러 쓰게 되었고, 테를 동돌려 속에는 鉢形이다。 이는 前記 高句麗 壁畫 雙楹塚 騎馬人物像과 共通點을 이루고 있으며 갑옷은 上下로 分離되었는데 다만 下衣는 입을 것이라기 보다 가리는 形態로 봄이 타당할 것 같다⑤。 둘째는 鐵製 短甲이다。 이는 釜山 東亞大學校에서 七二年度에 咸陽地區 古墳群 發掘때에 出土된 것으로서 매우 狀態가 좋은 편이다。 이는 鐵板을

머리가 굽은 옷으로 연결하여 만든 것으로 가슴과 등만을 保護하게 하였고, 등판은 어깨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나 가슴 부분은 어깨에 미치지 못하고 다만 등판 것과 별도로 연결시키게 한 것이 特徵이라 하겠다⑥。 셋째는 七三年度에 發掘된 蠟石製十二支像이다。 이는 十二支中 亥像을 象徵한 것으로 투구는 돼지 머리를 彫刻하였기 때문에 表現되지 아니하고, 다만 갑옷만 그것도 浮彫이기 때문에 前面部分만이 彫刻되었으나 매우 事實의인 表現이다。 즉 목 부분을 돌린 線의 形態나 가슴 부분의 各種裝飾, 소매에 나타난 소매자락의 처리, 그리고 투구의 마무리, 아



圖1. 雙楹塚 騎馬 人物像

올리 腹部와 이를 연한 아래 부분의 돌린 무늬의 處理는 매우 精巧한 彫刻 手法으로 다듬어서 당시의 갑옷 形態를 如實히 짐작하게 하는바다⑦ 또한 이와 같은 蠟石製午像이 있는데 이것도 투구는 없고, 다만



圖 2. 土製騎馬人物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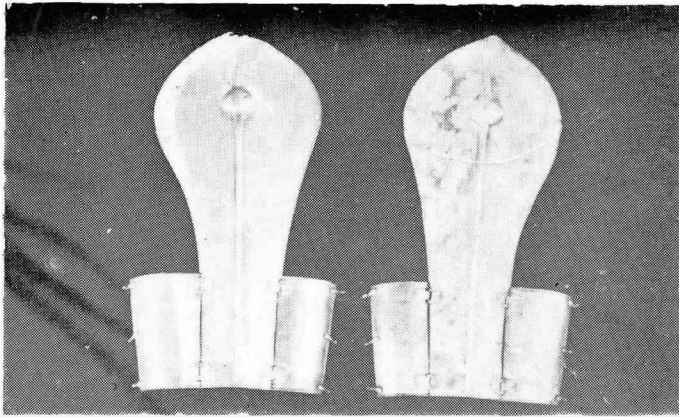


圖 3. 銀製脛甲

갑옷만이 彫刻된 狀態이다. 이 形態는 목 부분에 裝飾이 돌리우고 소매 자락은 불꽃 모양으로 위로 誇張시켰으며 아래는 臀部를 연한 前後左右로 밀을 등글린 모양으로 卽연꽃 잎이 거꾸로 된 모양이다. 여기에 鱗狀紋이 施文되어 한결 아름답게 보이고 그 밑으로는 홀대바치 모양인데 길이는 踝骨까지 이르고 있다⑧. 넋째는 九八號 古墳과 天馬塚에서 出土된 金銅製와 銀製 脛甲이다. 脛甲이란 무릎 아래 정강이를 保護하기 위한 것으로 天馬塚古墳에서 出土된 것은 金銅製 한 벌이나 破損이 매우 심하여 그 形態가 完全하지 못하다. 同報告書에 依하면 上部는 寶珠形을 이루고 질차 밑으로 내려 오면서 좁아 졌고 中央

에는 隆起된 突起線이 아래로 施文되었는데 上部 寶珠形 끝까지의 施文與否는 確實하지 않다. 또한 下部에는 門扉形板이 左右로 各各釘鏢三個에 依해 침부되었는데 이는 뒤에서 固定하게 된 것이다⑨. 또한 이와 함께 出土된 것으로는 金銅製三枝形立飾인데 위에 立飾部分의 形態만이 殘存하나 이에 對한 可否의 對해서는 더 研究가 必要할 것 같다. 아울러 脛甲이 위와 같은 同形의 遺物이 出土되기는 慶州 皇南洞 九八號 古墳에서 었다. 이 脛甲도 天馬塚에서 出土된 것과 같으나 다만 資料面에서 銀製의 差가 있을 뿐이고, 上部 寶珠形 中央에 圓蓋形을 陽出시킨 것이라 하겠다⑩.

다, 傳存 遺物面에서

甲冑의 實物이 傳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현재 高麗末의 名將 鄭地將軍이着用하던 갑옷을 비롯하여 朝鮮王朝 宣祖朝때의 名臣 柳成龍(1542~1607)이 都體察使 때에 直接着用한 것으로 傳하는 甲冑 그리고 英祖때 黃海兵使兼 瓮津 都護府使를 거쳐 資憲大夫에까지 이르렀던 呂伴의 甲冑等⑪은 各各 그들의 後孫들에 依해 고이 간직 되어 傳하여 지고, 또한 李忠武公의 五代孫이며 景宗四(1724)年에 摠戎使에 이어 捕盜大將과 訓練大將을 歷任하고, 英祖四(1728)年三月 李麟佐亂 때 戰死한 李鳳祥將軍의 甲冑가



圖 4. 呂伴의 甲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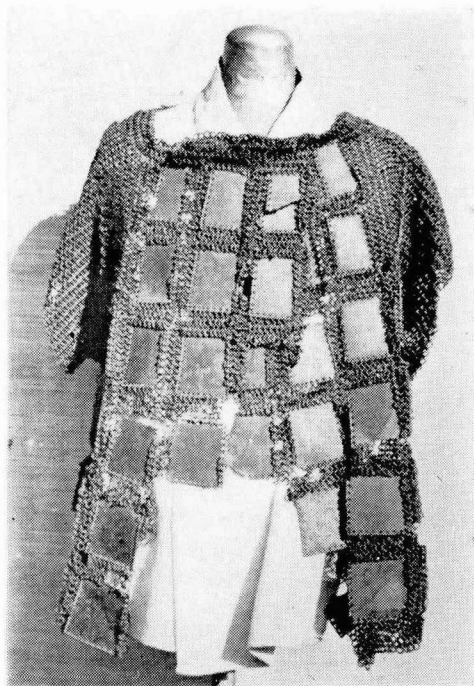


圖 5. 鄭地將軍갑옷

傳하는 바 이는 元帥와 副元帥用이고, 또한 元帥用으로는 慶州府使가 着用하던 것이라고 傳하는 豆錫鱗甲冑가 있다. 以外에도 昌德宮에서 傳하는 御用 甲冑, 民俗博物館에서 傳하는 頭釘甲, 그리고 海外로 流出된 日本 東京所在 寶物遺品館(靖國神社內)에 傳存되는 甲冑等 그數字는 매우 豊富하게 京鄕各地에 傳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모두 朝鮮 王朝後期の 것이며, 그 以前으로 溯及된 것은 매우 稀貴한 것이다. 然而 그나마도 紙面關係上 모두 紹介할 수는 없고 다만 그 中에서 代表的이라고 여겨지는 몇 점만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첫째 鄭地將軍(1347~1391)의 갑옷<sup>13</sup>

이 갑옷은 一九六〇年 一月二〇日 寶物第三三六號로 指定된 것으로서 鐵片과 鐵고리를 연결시켜 만든 現存遺物中 가장 最古에 屬하는 갑옷이다. 鐵片은 세로가 7·5cm 내지는 8cm 程度이고, 가로가 5cm 내지는 8·5cm에 이르는데 周圍에는 구멍을 뚫고, 고리는 지름 1cm로서 뾰족한 양 끝을 걸친 것과 양 끝을 소형 못으로 고정시킨 두 가지를 안과 밖으로 二重으로 하여 鐵片구멍에 연결하였다. 前面은 여섯편을 연결하여 한 줄로 만든 것이 여섯줄이 있어 두 줄은 여미게 되었고, 이는 左右로 갈수록 鐵片수를 줄여서 네 편씩 한 줄 또는 세 줄씩 두 줄을 연결하여 겨드랑 밑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한편 등판쪽은 일곱 편으로 한 줄을 만들어 다섯 줄로 하였다.

한편 소매는 어깨에서 팔꿈치에 이르게 하였는데 다만 쇠고리만으로 연결하였는 바 이는 팔놀림의 自由로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긴 부분과 목가리개(鎧)에 對해서는 損傷이 심해 그 形態를 알 수 없는 것이 아쉽다.

둘째 柳成龍(1542~1607)甲冑.

이 갑옷도 一九六七年 七月一五日 寶物 第四六〇號로 指定되었는데 이를 투구와 갑옷으로 區分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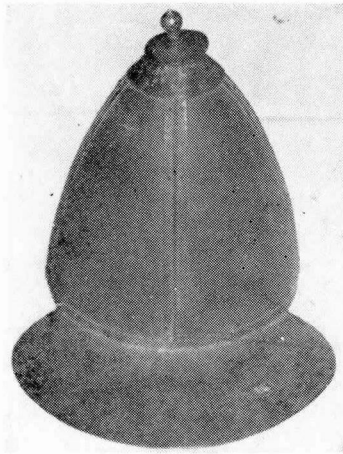


圖 6. 柳成龍의 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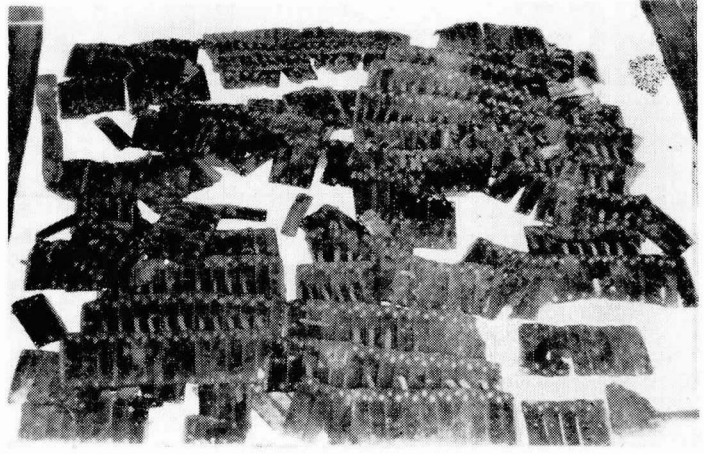


圖 7. 柳成龍의 갑옷

가, 투 구

鐵로 만들어 黑色漆을 하였다. 위는 좁고 아래는 퍼진 모양으로前後左右에는 물림쇠를 대어 接續連結하였는데 頂蓋에는 寶珠가裝飾되고, 그 밑으로는 圓形鐵을 대고 마무리는 亦是 鐵板을 利用하였다. 特別히 寶珠 밑으로는 珠絡이裝飾되었으련만 現在는 痕迹도 없다. 투구의 높이는 23 cm 둘레는 63·5 cm로서 그 모양이 펍 아담하고 頂蓋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퍼지다가 끝부분에서 약간 안으로 우그러 마무리를 하였다. 그리고 正面中央을 起點으로 가로 25 cm와 세로 9 cm의 半月形의 蹠(前庇)이 貼付되었는데 매우 대담한 突出形이다. 따

라서 목 가리개가 앞 쟁을 연결하여 貼付되었을 것이나 現在는 痕迹도 없다.

나, 갑 옷

갑옷은 오랜 年輪이 흘러 걸감이나 속반침, 그리고 안감 같은 織物은 痕迹도 없고 다만 皮札(大形 3·5 cm × 10·7 cm 中形 2·8 cm × 7 cm 小形 1·8 cm × 4·8 cm)만이 남아 있기는 하나 形態는 짐작도 할 수 없는 實情이다.

셋째 傳 李鳳祥(1676~1728) 甲冑.

이 甲冑는 忠淸北道 淸原郡에서 간직하던 것이나 現在는 軍事博物館에서 所藏하고 있다. 이는 前記한 바와 같이 元帥 副元帥用으로 區分하는 바 이를 階級差에서 表現된 紋樣等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투 구

1. 元帥用

원바탕은 紙質인상 같다. 겉과 내부를 모두 黑色漆로 하여 매우 윤택하다. 모양은 위가 좁고 아래로 내려 오면서 퍼지다가 直線으로 마무리한 形態로써 前後左右로는 四注로 裝飾하였는데 正面 中央 上部 圓內에는 飛鶴이, 그리고 下部에는 萬字를 各各 透彫하였고, 이를 起點으로 하여 上下에는 雙條隆起線과 그 사이에는 如意頭文에 이어 唐草文이 浮彫되었다. 그리고 그의 結構 左右와 後面것은 上部 圓內것만이 四瓣花文이 透彫되고 下部것은 모두 前面과 같이 萬字文이다. 아울러 이 四注를 이은 下部 돌림 裝飾은 變形된 如意頭文이 한 칸에 두 개씩 돌리고 그 內部에는 五瓣花가 貼付되고 그 밑으로는 鳳凰이 周圍를 돌아가며 고루 透彫되었다. 한편 四注 칸막이 前面左右에는 正面을 서로 바라보는 三爪龍이 如意珠를 회룡하며 내려오는 모습이고, 後面 左右에는 鳳凰이 亦是 위에서 如意珠를 회룡하며 내려오는 모습이다. 正面에는 前庇(蹠)가 貼付되었던 痕迹이 있으나 破損되어 形態를 알 수 없고, 그 밑으로

는 이마가리개가 山形을 이루고 있는데 正中에는 圓線 안에 元帥라는 文字가 있고, 그 左右에는 元帥文 위에 있는 如意珠를 向해 三爪龍이 사나운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形狀으로 浮彫되었다.

나, 副元帥用

質과 形態는 元帥用과 같다. 頂蓋의 마무리는 塗金透彫唐草文을 精巧하게 만들어 쇠웠고, 幹鐵은 꽃이 만이 남아 있어 끝았던 裝飾은 原形을 알 길이 없다. 허리部分의 前後左右에는 도깨비 紋樣의 塗金製裝飾이 두개씩 貼付되었고, 正面 中央에는 前庇가 貼付되었던 痕迹이 있으나 破損되어 原形을 알 수 없다. 正面 이마가리개 部分에는 山形이며, 밑으로는 下帶線이 一條 돌리고 內部에는 雲龍이 精密한 手法으로 透彫되었으며, 正中 下部로는 圓線 안에 副元帥의 銘文이 鮮明하게 浮彫되었다. 그리고 이 이마가리개를 連해 左右側과 後面에는 木가리개(鏹)가



圖 8. 李鳳祥의 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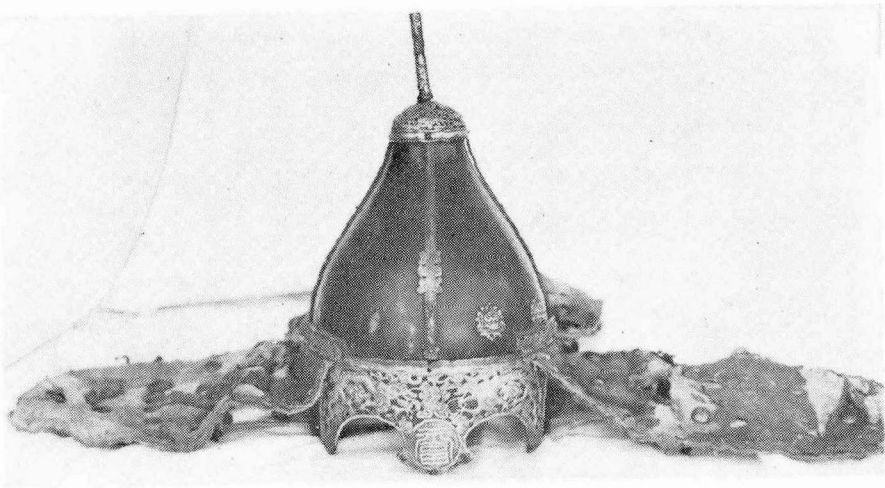


圖 9. 副元帥 투구

붉은 氈을 길잡이로, 무명으로는 속을 받치고, 하늘색 무명으로 안잡을 써서 黃頭釘으로 길에서 안으로 固定하여 마무리 하였다.

나, 갑옷

길잡이는 붉은 색 氈이고, 속잡은 무명을 누여서 받치고, 안잡은 하늘색 무명으로 하였다. 가슴과 어깨 부분에는 黃頭釘으로 길에서 안으로 밖았는데 속에는 길이 6.2 cm 너비 4.5 cm의 方形鐵板을 받치고 정시켰다. 그리고 그 위에 하늘색 안잡을 받친고로 매우 활동에 自由로울 뿐 아니라 입고 벗는 데에도 不便을 느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너우기 깃은 너비 4 cm 程度의 黑色우단을 대었고 앞

깃 밑으로 고름을 두 곳에 달아 고정하게 하였다.

특히 이 갑옷은 朝鮮王朝時代를 通해 有事時에 別定職으로 任命되는 元帥나 副元帥의 特殊戰鬪指揮官의 갑옷으로서 매우 그 威容이 堂堂하였을 것으로 이는 투구나 갑옷의 만능새로 가히 짐작하게 한다.

빛재, 傳慶州府尹 甲冑

이 豆錫鱗甲冑는 現在 國立慶州博物館에 所藏하고 있는 것으로 투구의 裝飾具가 若干破損되었으나 매우 그 保存管理 狀態가 좋은 편이다. 傳해 오는 말에 依하면 府尹이 使用하였다고는 하나 年代와 使用者를 알지 못해 아쉽다. 또한 구태여 豫測한다면 옛 官衙 常備用으로 傳存된 것이 아닌가 싶다.

### 가, 투 구

위는 좁고 아래는 넓은 모양인데 前後左右에는 四注를 豆錫으로 固定하였다. 그 製法과 形式은 李鳳祥將軍의 투구와 別差없고, 다만 四注 中央部에는 圓內에 萬字를 表示하였다. 그리고 前面 左右에는 各各 龍이 如意珠를 向해 내려오는 姿勢로 透彫되고, 後面에는 亦是 左右로 鳳凰이 如意珠를 向해 내려오는 모습이다. 아울러 허리 부분에는 唐草와



圖10. 李鳳祥의 갑옷

花鳥를 透彫하는 한편 四注 사이마다에는 두개의 如意頭文을 透彫하여 위를 向해 두드러지게 表現시켜 한층 아름답게 보인다. 그리고 正面에는 七稜形의 前庇가 透彫되어 달렸고, 그 밑으로는 이마 가리개를 山形으로 다렸는데 그 正中에는 元帥라는 文字가 圓帶線안에 솟은 모양으로 表現되었다. 따라서 허리 밑으로는 左右와 後面에 목 가리개(鑑)가 갑옷의 만듬새와 같은 製法으로 밑은 둥글러 貼付하였다.

한편 頂蓋의 마무리는 花瓣帶를 둘러고, 그 위로는 一條帶線, 이어 唐草紋 透彫로 하고, 幹鐵을 세웠는데 이는 幹柱의 꽃이 뿐이고, 裝飾은 모두 損傷되어 形態를 알 수 없다.

### 나, 갑 옷

질감은 붉은색 氈이며 고기의 비늘 形態로 全體를 裝飾하였다. 이는 늦쇠로 밑은 둥글리고, 위는 모를 만들어 黃色과 赤色 그리고 黑色을 칠하여 서로 연결려 配置한 것이다. 따라서 앞술기 아래 豆錫鱗 밑은 부분과 소매 部分에는 花文의 長方形 裝飾이 달렸고 긴부분에는 牡丹文裝飾이 달렸다. 따라서 앞 단추는 해태머리를 彫刻하여 달았으며, 앞술기와 옆구리, 그리고 소매부리와 배래기에는 모두 흰색 토끼털을 둘러었다. 또한 아래 단추는 圓形 豆錫釘이 前面과 後面에 모두 一定하게 配置되었고, 그 中央部에는 해태 裝飾이 앞을 向한 모습으로 彫刻되어 配置되었다.

### 다, 石造物에 依한 武人像

예로부터 現今까지 甲冑에 對한 資料를 詳考한다면 이제까지 살펴 본 資料外에 石造物에 彫刻된 石像等을 들 수 있을것 같다.

悠遠한 歷史와 더불어 고이 잔치된 全國 坊坊曲曲에 散在한 寺刹에 保存되고 있는 各種 繪畫나 石造 그리고 木造物이 있기는 하나 新羅以來 陵墓에 設置된 武像은 그 時代에 매우 符合된 代表作이라 여겨진다. 勿論 오랜 歲月동안 季節的인 變化로 因한 損傷도 적지는 않음 것이나



圖11. 傳慶州府尹 甲冑

좋은 資料로 活用될 수 있는 與件은 充分할 것으로 여겨진다. 연이나 그나마도 新羅時代의 것으로는 掛陵에 있는 武人像 뿐으로 다른 陵에서 는 찾을 길이 없고, 高麗朝의 것은 大部分 休戰線以北에 있기 때문에 또 한 調査 不能한 狀態이며, 現在 傳存되는 것으로는 朝鮮王朝의 王陵武人 像만이 있을 뿐이다. 더우기 朝鮮王朝의 王陵에 세워진 武石像은 한결같 이 儀式用 甲冑로서 그 規模는 實로 敬歎할 程度로 精巧하고도 아름답게 다듬어졌다. 따라서 이에 對한 具體的인 評論은 後日로 期約하고, 本稿 에서는 다만 특구와 갑옷으로 區分하여 要點만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첫째, 투구의 形態

李太祖의 健元陵 武人像은 頂蓋處理에 있어 寶珠와 珠絡만이 表現되 고, 前後面의 무늬가 單調로우며, 목가리개(鈕)는 겨우 등에 미칠 程度 로 處理되었다. 그 後 世宗陵 武人像은 別差없이 그 規模가 크고 彫刻 의 솜씨가 두드러지며, 文宗으로부터 景宗에 이르는 동안은 部分的인



圖12. 掛陵의 武人像

무늬의 變化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英祖朝에 이르면 頂蓋에는 鐙鈕 即 三枝槍으로 바뀌며 珠絡의 模樣이 一결 두드러지게 表現된다. 또한 四注와 前後左右의 무늬 處理도 一결 부드러운 感覺을 풍기며, 목가리개, 處理도 느러진 狀態에서 뒤로 移쳐 結束시킨 것 등은 매우 發展的인 樣 相이다. 이러한 制度는 位號가 王에서 皇帝로 改稱된 高, 純宗朝에 까지 미치는데 다만 그 規模의 差가 있을 따름이다.

둘째, 갑옷의 形態

儀式用이어서 그러한지 一결같이 袍形이다. 따라서 소매 道線에서 옆 을 割開한 것, 肋甲이나 胸, 背甲의 處理, 그리고 칼집과 寅鈎을 집고 있는 姿勢等은 別로 差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大部分 太祖로부 터 純宗에 이르기까지 갑옷의 무늬는 솜을 고리문이 別差없이, 變化 가 있다면 肋甲과 胸, 背甲의 形態와 이에 附隨된 部分品과 釵樣의 差 다. 即 肋甲이나 胸, 背甲에 있어 따로 따로 分離된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로連結시킨單一化製도 있는 것이다. 또한 무늬에 있어서도 花紋을 爲始하여 唐草、龜甲、魚鱗、波濤、瑞雲、獬豸、도깨비文等 매우多樣하게 表現되었으며, 특히 英祖陵의 武人像은 소매자락이 길어 뒤로질끈 고를 지어 느러트린 모양은 보기에 매우 아름다우며 현대적인感覺을 물씬 풍겨 주고 있다.

## 二、豆錫鱗甲冑에 對하여

낫쇠로 魚鱗과 神獸、그리고 여러가지 吉祥무늬를 곁들여 精巧한 솜씨로 만드려진 甲冑가 傳하여지기는 前述한 바와같이 慶州府尹의 甲冑가 있고, 또한 그 보다 形態가 거의 完全하고 損傷이 별로 없는 것으로는 高麗大學校 附屬博物館에서 所藏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는 着用者의 說이 區區하나 투구에 表示된 銘文에 元帥로 表現되었으니 그 範圍



圖13. 英祖陵武人像

에서 變動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現在까지 傳存되는 遺物中 가장 두드러진 모양을 한 이 甲冑에 對하여 좀더 具體的이고도 詳細한 그 形態와 製法을 다음에 살펴 보고자 한다.

## 첫째, 투구

### 가, 頂蓋部分

頂蓋裝飾은 頂上의 鍮製鎧鉞 즉 三枝槍으로 始作된다. 正鋒은 中央에 모를 세우고 끝과 양날은 예리한 狀態이며 橫股는 直線으로부터 外反한 狀態이다. 三枝槍 밑으로는 鎧裝飾과 寶珠가 있고, 이어 六角의 橢圓球와 圓形 낫쇠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鳳凰이 앞뒤에 浮彫되었고, 그 밑으로는 珠絡이 달렸다. 이어 中央에는 頂上 鎧鉞로부터 珠絡에 이르기까지 連結된 幹柱가 있는데 이는 꼭기도 하고 뾰기도 하게 되었다. 幹柱 끝에는 頂蓋 鍮製五瓣花花房을 中心하여 세워졌고 이 花瓣周圍에는 鳳凰 다섯 마리가 나르는 形態로 浮彫되었다. 이어 이와 連結된 밑으로는 唐草透彫를 하고 四注를 밑으로 하여 如意頭文帶로 마무리를 하였다.

### 나, 中央部

머리가 드러가는 곳을 말한다. 즉 鉢이라고도 하는 곳인데 正面과 後面, 그리고 左右로 四注가 있는바 이 注에는 左右로 隆起雙條를 이루고 中央에는 唐草文이 透彫되고, 中央部 上下로는 圓線內에 萬字와 아래 위에는 如意頭文이 各各 透彫되었다. 그리고 그 四注안에는 前後 모두 鳳凰이 서로 마주 바라보는 姿勢로 위에서 내려 오는 모습으로 透彫되어 貼付되었다. 아울러 下部로는 四注를 連結한 周圍帶飾이 每間마다 變形된 如意頭文을 各 두 개씩 配置하고, 그 속에는 花文이 있으며 그 밑으로는 前面에는 鳳凰이 左右에서 날아들고 後面에는 龍文이 구름과 파도를 곁들여 透彫된 狀態인데 各部分別 彫刻의 솜씨는 精巧하기 이를데 없고, 매우 아름다운 姿態이다.

다, 쟁(前底)과 이마가개

양귀로부터 앞이마에 이르는 곳에는半月形으로 안을 둥글리고亦是  
 斗錫板으로重腹으로連結하였으며,中央部와목가리개接續部分은花紋板  
 을,左右에는各三個,後面에는七個를다렸고,그周圍단에는 모두水  
 獺皮를 둘러어 한결따사롭고아름답게 보인다. 또한左右쪽 등글림中  
 央쪽에는 끈을 달아 필요할 때는 턱 밑으로 고정시키든지 또는 뒤로 제  
 처 매든지 하게 되었다.

둘째, 갑옷

가, 깃부분

豆錫板으로龍을무늬화하여 앞면左右로四等分하고,또한뒤로四  
 等分하여 이는 모두 고리를동그랗게하여連結시킨團領形이다.勿論  
 等分으로區分連結한 것은活動에自由롭게即몸놀림에便利하게한

라, 목가리개(銜)  
 걸감은 붉은 氈이며, 속감은 고은 무명 두점을 누벼 白色 明紬로 받  
 쳤고, 안감은 옥색 明紬를 使用하였다. 이는 正面을 除外하고, 左右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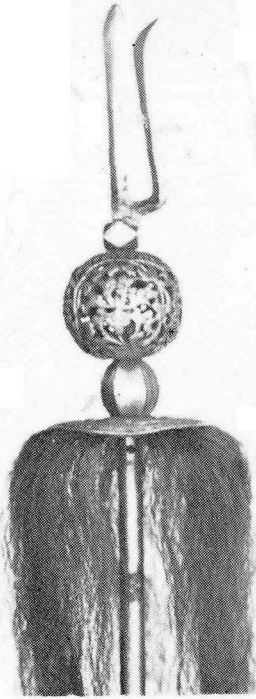


圖14. 鎧把裝飾



圖15. 투구의前面



圖16. 前面



圖17. 後面

方策인 것이며, 따라서 그彫刻의 솜씨 또한 놀랍다.  
 特別히 앞連結部分即 단추의 役割을 하는 곳에서 龍의 머리를 彫刻하  
 고 右側것에는 如意珠를 물렸는데 그 속으로 구멍이 뚫렸고, 左側의 龍  
 頭를 끼우게 되었는데 바이를 連結하여 外貌로 보면 마치 두마리의 龍이  
 如意珠를 사이에 두고 戲弄하는 듯하다. 그리고 깃을 連한 周圍를림에  
 는 花文裝飾板을 돌려 깃과 원바탕 魚鱗과의 界線을 表現시키고 있다.

나, 前面部分

갑옷의 形態는 앞 깃 밑으로 直割하고 따라서 소매 배래기를 連하여  
 거드랑 열구리 밑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뒷판 臀部以下를 모두 트이게  
 하여 割開式인데 이는 모두 儀式이나 訓練이나 有事時를 莫論하고 活動  
 과 指揮하는데 容易한 行動을 取하게 하기 爲한 方案이었을 것이다.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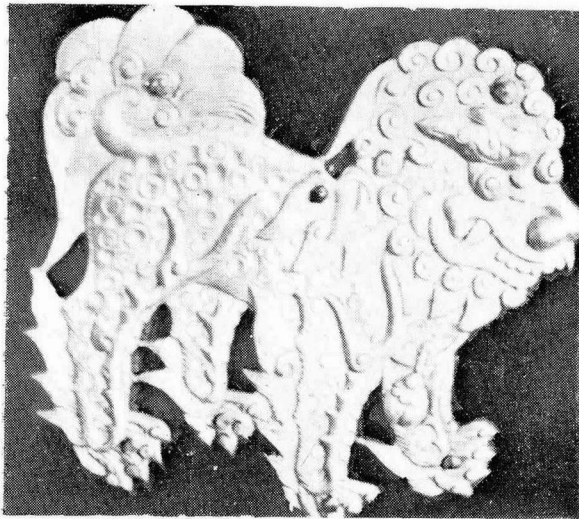


圖18. 獬豸

소매 上膊部와  
뒷면 臀部에 이르  
는 곳까지는 앞면  
에 連해 鱗狀을  
豆錫으로 連綴하  
였고, 그 配色도  
앞면과 같이 하였  
다. 아울러 臀部  
以下는 中央이 갈

다, 後面部分  
形과 棉絲로 紈고  
리를 만들어 附着  
하였다. 다만 앞  
깃을 연한 二個處  
에는 獬豸머리를  
彫刻하여 달았다.

서 그 만듬새에 있어서도 길잡은 붉은색 氎이고, 무명을 여러 겹 누벼 속  
에 대고, 백색 명주를 받치고, 또 안감은 옥색 明袖를 使用하였다. 그리  
고 몸에서 가장 主要한 胸部와 그 一帶를 豆錫鱗 卽 黃色, 赤色, 黑色  
等 三色을 漆하여 連結시켰는 바 이는 소매 부분은 上膊部以上, 그리고  
前面은 下腹部以上 後面은 臀部以上이다. 따라서 아래 단에는 豆錫鱗裝  
飾이 끝나는 部分以下에는 黃頭鉞을 橫으로 列을 맞춰 裝飾하는 한편  
中央部에는 圓銅板에 雲鶴을 비롯하여 長生紋, 그리고 神仙이 고기를 타  
고 노니는 모습과 七寶紋을 斗쇠로 彫刻하여 配列裝飾하였다. 한편 앞  
섬을 연한 豆錫鱗을 貼付한 位置로부터 앞단 界線과 소매에는 圓線內에  
三瓣花 무늬를 한 모를 쥔 方形豆錫板을 달았고, 앞술기와 소매부리를  
連한 도련 그리고, 옆구리에는 모두 水獺皮로 둘러우고, 단추는 鍮製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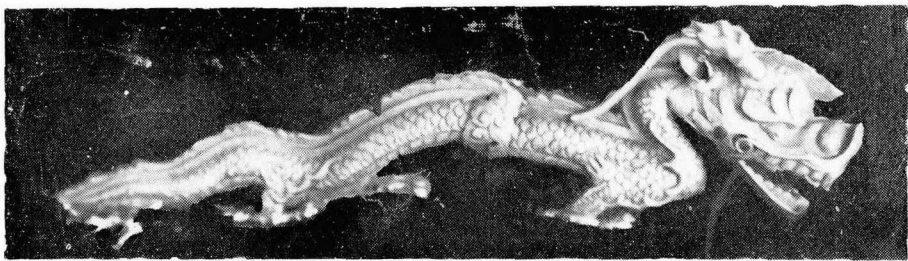


圖19. 肩龍

라, 肩 龍  
양 어깨에는 鍮製龍이 外部로 머리를  
두고 달려 있다. 머리는 兩角이 뒤로 세  
쳐졌고, 양미간에는 지느러미를 세웠  
으며, 입은 사나운 이빨을 사실화하여  
彫刻하였다. 이는 아래 턱이 움직이게  
되었고, 따라서 목은 두이차로 등굴림  
과 동시에 다리가 조각되고, 허리는 일  
단 끊겼다가 다시 連結이 되었으며, 뒷  
쪽으로 다리를 양쪽에 디딘 모양인데  
이는 어깨에 고정 시키기 위함이며, 연  
해 꼬리를 바로 처리 하였다.  
특히 뿔과 양 귀의 處理는 매우 섬세  
하며 등줄기를 연한 꼬리까지의 지느러  
미는 너무나 事實의이다. 더욱 內部  
의 붉은 색의 塗色은 입이 벌어진 때마  
다 色感이 玲瓏하게 빛나고, 허리의 連  
結部分은 中央部分에 釘鐵로 處理한 關  
係로 作動할 때마다 꿈틀거리는 形態로  
變한다. 그러나, 갑옷을 입고 팔을 움  
지일 때마다 양 어깨의 용은 꿈틀거리며  
입을 벌렸다 다무렸다 하는 움직임을

라졌고 양 쪽에는 黃頭鉞으로 橫三線,  
그 以下도 亦是 間隔이 넓은 模樣으로  
四線을 配列한 다음 그 사이 사이 마다  
에는 鍮製金鑽을 비롯하여 獬豸와 七寶  
等이 彫刻되어 貼付되었다.

하게 되는 것이다.

### 맺는 말

이제까지分野別傳存實態를 例示하여 보았으나 이는 極히 一部에 지  
나지 않으며 앞으로 더욱 廣範하고도 꾸준한 努力과 探究가 切實히 要  
求되는 바이다. 勿論 傳存되는 遺物로서 그 時代의 것은 期待를 걸어  
볼지도 하지만 其외의 空白 期間에 對해서는 前後를 參酌하는 道理밖  
다른 方法이 없는 상 싶다. 또한 아울러 希望을 걸어 볼만한 問題는 鄰  
接한 나라들과의 共同關心事로 文化交流를 通한 相互 資料交換에 연  
지는 結果일 것이다. 例컨대 前述한 바와 같이 日本 東京所在 遊就館  
即 寶物遺品館에 우리나라 甲冑가 어느 經路를 通해 流出이 되었는 간에  
상당한 量이 現存되어 있고, 또한 文獻上으로는 朝鮮太祖三(1394)年  
七月初五日에는 暹羅斛 即 泰國의 張思道가 甲冑와 칼, 구리 그릇 등을  
進上한 바 있고 ⑮, 太宗一四(1414)年一月初四日(癸卯)에는 崔海  
山에게 命하여 中國의 鏡幡甲을 본으로 하여 甲冑를 製作하게 하였던  
事例 등이 있다 ⑯.

또한 그 種類에 있어서도 이미 略述하였거니와 其外에도 多紅大緞塗  
金銅葉甲冑 肩緞皮甲冑等 가죽이나 鐵, 그리고 銅, 氈 등을 原料로 하여  
여러 形態의 무늬를 새겨 그 用途나 職級에 依하여 만들어 着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一三七七年 火鴉都監이 設置된 以後 火藥兵器가 漸進的  
으로 研究開設되고, 壬辰, 丙子의 戰亂을 겪은 以後로는 戰術的인 制度  
마저 變化됨에 따라 必然的으로 그 着用範圍도 制限되게 되었던 것이  
다.

本稿는 筆者가 그동안 蒐集한 資料를 根據로 未洽하나 一部를 整理  
하여 보았다. 아직도 京鄕各地에는 許多한 資料가 많을 것으로, 좀더  
珍貴한 遺物을 發掘하고자 하는 徵衷에서 敢히 試圖해 본 것임을 밝히  
며 拙文을 맺는다.

### 〈註〉

- ① 朝鮮古蹟圖譜二圖版 五四三 一六七項.
- ② 朝鮮古蹟圖譜二圖版 四九八 一四六項.
- ③ 國立中央博物館收藏遺物로서 製作年代未詳이나 매우 狀態가 좋다.
- ④ 現在 陸軍士官學校 軍事博物館에 所藏되고 있는 殉節圖에는 將卒의 區分이 確實하다. 즉 東萊府殉節圖에는 門樓에 一名의 將軍과 右側에 또 一名이 配置된 狀態이고 李珪左兵使는 後門으로 兵卒을 데리고 逃走하는 모습이다.
- ⑤ 文化財大觀 國寶編一〇五 陶製騎馬人物像 國寶第九一號 新羅(五·六世紀)가, 높이 23.4 cm  
나, 길이 29.4 cm  
이 一九二四年 慶州市 路東里 金鈴塚에서 出土되었다.
- ⑥ 成陽上古里古墳群發掘調查報告書(一九七二年 古蹟調查報告 東亞大學校博物館) 6 P 參照.
- ⑦ 國立慶州博物館名品選, 國立慶州博物館刊(一九七三) 57 圖 參照.
- ⑧ 韓國美術二千年 國立博物館刊(一九七三) 14 圖 參照.
- ⑨ 天馬塚 文化財管理局刊(一九七四) 106 P 武器 및 利器類 參照.
- ⑩ 慶州 皇南洞 第九八號古墳(南墳)發掘略報告 文化財管理局刊(一九七六) 26 P 武器 및 利器類 四〇圖 參照.
- ⑪ 土鄉誌 內務部地方局行政課刊(一九七三) 1074 P 慶北星州郡碧珍面海平洞 呂相愷所藏.
- ⑫ 遊就館에 所藏된 우리나라 甲冑는 元帥用 투구와 頭釘甲等 十餘種이 保存되고 있는 바, 이는 筆者가 渡日當時 撮影하여 歸國한 바 있다.
- ⑬ 文化財大觀(寶物篇下) 文化財管理局刊(一九七二) 68 P 一四、鄭地將軍環衫條 參照.
- ⑭ 慶北 安東郡 豐川面 河回洞 柳時泳所藏.
- ⑮ 陸軍士官學校 軍事博物館所藏.
- ⑯ 國立慶州博物館所藏.
- ⑰ 이 武石像은 驪州所在 英陵武石像이 아니라 現在 世宗紀念館 앞 앞뜰의 武石像이다. 이 武石像은 英陵(驪州)으로 遷葬하기 이전 것이다.
- ⑱ 朝鮮太祖實錄卷六  
同王三年(甲戌) 七月壬寅條  
朝鮮太宗實錄卷二十八  
同王一四年(甲午) 十一月癸卯條

(文化財專門委員)